

# 7장. 판별분석



## 판별분석

- 1. 판별분석 개요
- 2. 선형판별식의 기하
- 3. 판별의 원리
- 4. 선형판별함수
- 5.1. 정준상관분석
- 5.2. 정준판별분석
- 6. 단계적 판별분석
- 7. 로지스틱 회귀를 이용한 판별분석
- 8. 의사결정나무

#### 1. 판별분석 개요

- □ 판별분석(Discriminant Analysis) 정의
  - 여러 집단에서부터 나온 개체들을 관찰값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을 마련하고
     새로운 개체를 이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분석 기법
  - 그룹을 나타내는 하나의 변수(집단변수(분류변수))와 집단을 판별하는데 사용되는
     다수의 서로 연관된 변수들(판별변수)로 구성됨
- □ 판별분석(Discriminant Analysis) 목적
  - 외적 기준에 의하여 정해진 2개 이상의 그룹을 가장 잘 판별하는 설명변수 조합을 찾음으로써 향후 분류 및 예측 등에 활용
    - 각 대상들의 소속집단을 파악하여 주는 판별식을 찾아냄
    - 대상들을 집단으로 분류하는데 의미있는 독립변수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냄
    - 각 집단들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가를 알려줌
    - 판별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한 대상을 어느 집단으로 분류할 것인가를 예측

- □ 선형판별분석을 위한 가정
  - -독립변수들이 다변량 정규분포(multivariate normality)를 이루며,
  - 종속변수에 의해 범주화되는 그룹들의 분산-공분산행렬(variancecovariance matrices)이 동일
  - 다중정규성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료를 판별분석을 하는 경우

: 판별함수의 추정에 문제를 야기시키며, 이 경우 logistic regression이 사용

다중 정규성 가정을 요구하지 않음.

- 분산-공분산 행렬이 동일하다는 가정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

: 보다 큰 분산-공분산 행렬을 갖는 그룹에 많은 관측치가 분류되는 문제점 발생

□ 판별함수의 수와 판별분석을 위한 표본의 크기

- "종속변수 집단 수 1"과 "독립변수의 수" 중에서 작은 값만큼의 판별함수가 만들어짐
- 판별분석을 위해서는 관측치의 개수(표본의 크기)가 독립변수 수의 20배 이상이 되는 것이 요구되며, 종속변수의 각 범주에 최소한 20개가 요구
- 표본의 크기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분석결과는 불안정 (unstable : 판별식을 구성하는 각 독립변수와 전체 판별식의 설명력과 예측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미)

- □ 판별분석(Discriminant Analysis) 과정
  - 판별 과정 (discrimination): 관찰된 변수로부터(판별변수 값) 전체집단을 2개의 집단으로 분류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판별함수의 구축 및 해석
    - 사전에 외적 기준으로 정해진 2개 이상의 그룹간 차이 밝혀내기
    - 그룹간 차이를 가장 잘 구분 짓는 설명변수 조합 찾기
  - 분류과정 (classification): 새로운 개체들을 선택된 판별 방법에 따라 가장
     적절한 집단으로 분류
    - 소속 그룹이 알려지지 않은 개체의 그룹 알아내기

→ 위 두 과정은 서로 분리되어 단독으로 처리 되기보다는 많은 경우 동시에 서로 복합되어 처리 : 판별 및 분류분석을 통틀어 판별분석이라고도 함

□ 일반화 거리를 이용한 판별식

#### - 적용방법

어떤 특정한 개체 x로부터 부분집단  $w_m$ 의 중심  $M_m$ 까지의 마할라노비스 (Mahalanobis) 거리제곱을 부분집단  $w_m$ 의 공분산행렬  $S_m$ 를 사용하여구하면,

$$d_m^2(x) = (x - M_m)S_m^{-1}(x - M_m)$$

만일 각 집단의 분산공분산행렬이 차이가 없어 공통공분산행렬을 사용하게 된다면  $S_m$  대신 공통공분산행렬인 S를 이용

$$d_m^2(x) = (x - M_m)S^{-1}(x - M_m)$$

 $d_m^2(x)$ 이 최소가 되는 집단 m에 개체 x를 분류

#### 판별분석 용어 및 개념

- � 사후확률 (posterior probability):  $P(y = g | \mathbf{x}), g = 1, \dots, G$
- � 사전확률 (prior probability):  $\pi_g = P(y = g), g = 1, \dots, G$
- ❖ 확률밀도함수(probability density function  $f_g(\mathbf{x}) = P(\mathbf{x}|y=g), g=1, \dots, G$
- ❖ 베이즈 정리(Bayes' rule):

$$P(y = g | \mathbf{x} = \mathbf{x}) = \frac{\pi_g f_g(\mathbf{x})}{\sum_{k=1}^{G} \pi_k f_k(\mathbf{x})}, \quad g = 1, \quad \dots, \quad G$$

- ❖ 확률밀도함수에 대한 가정
  - 선형판별분석, 이차판별분석 (선형의 경우 동일한 공분산행렬)

$$f_g(\mathbf{x}; \ \boldsymbol{\mu}_g, \ \boldsymbol{\Sigma}_g) = \frac{1}{(2\pi)^{p/2} |\boldsymbol{\Sigma}_g|^{1/2}} \exp \left[ -\frac{1}{2} (\mathbf{x} - \boldsymbol{\mu}_g)' \boldsymbol{\Sigma}_g^{-1} (\mathbf{x} - \boldsymbol{\mu}_g) \right]$$

• 로지스틱 판별분석 (로지스틱 회귀분석)

$$f_g(\mathbf{x}; \boldsymbol{\beta}) = \frac{\exp(\alpha + \beta_1 x_1 + \dots + \beta_p x_p)}{1 + \exp(\alpha + \beta_1 x_1 + \dots + \beta_p x_p)}$$

#### 판별분석 용어 및 개념

- 1. 선형판별함수 (Linear Discriminant Function, LDA)
- � 모집단 공분산행렬에 대한 동일성 :  $\Sigma_1 = \Sigma_2 = \cdots = \Sigma_g = \Sigma$
- ❖ 선형판별함수 :

$$f_g(\mathbf{x}) \propto L_g(\mathbf{x}) = -\frac{1}{2}\bar{\mathbf{x}}_g'\mathbf{S}^{-1}\bar{\mathbf{x}}_g + \bar{\mathbf{x}}_g'\mathbf{S}^{-1}\mathbf{x}$$

$$= a_g + \mathbf{b}_g'\mathbf{x} \quad (단, \ a_g = -\frac{1}{2}\bar{\mathbf{x}}_g'\mathbf{S}^{-1}\bar{\mathbf{x}}_g, \ \mathbf{b}_g = \mathbf{S}^{-1}\bar{\mathbf{x}}_g)$$

$$= a_g + b_{g1}x_1 + b_{g2}x_2 + \dots + b_{gp}x_p$$

- 선형판별계수 :  $\mathbf{b}_g = (b_{g1}, b_{g2}, \cdots, b_{gp})'$
- 사후확률을 구한 후

$$\begin{cases} P_1(\mathbf{x}) \geq P_2(\mathbf{x}) \ [ \color q, \ L_1(\mathbf{x}) \geq L_2(\mathbf{x})] & \longrightarrow & \text{집단 } G_1 \text{에 분류} \\ P_1(\mathbf{x}) < P_2(\mathbf{x}) \ [ \color q, \ L_1(\mathbf{x}) < L_2(\mathbf{x})] & \longrightarrow & \text{집단 } G_2 \text{에 분류} \end{cases}$$

• 모집단 공분산행렬이 다르다면 이차판별함수(Quadratic Discriminant Function, QDA) 이용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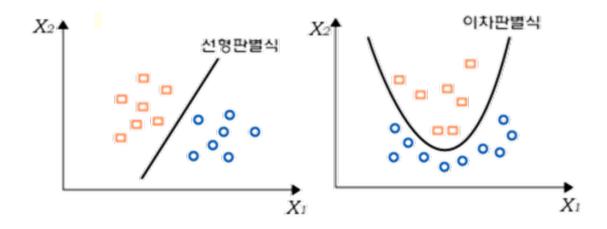
판별분석 용어 및 개념

□ 일반화 거리를 이용한 판별식

#### - 적용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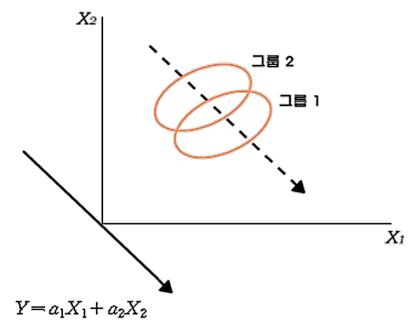
분산공분산행렬을 어떤 것으로 사용했는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선형판별식 또는

이차판별식을 통해 집단을 구분



#### 2. 선형판별식의 기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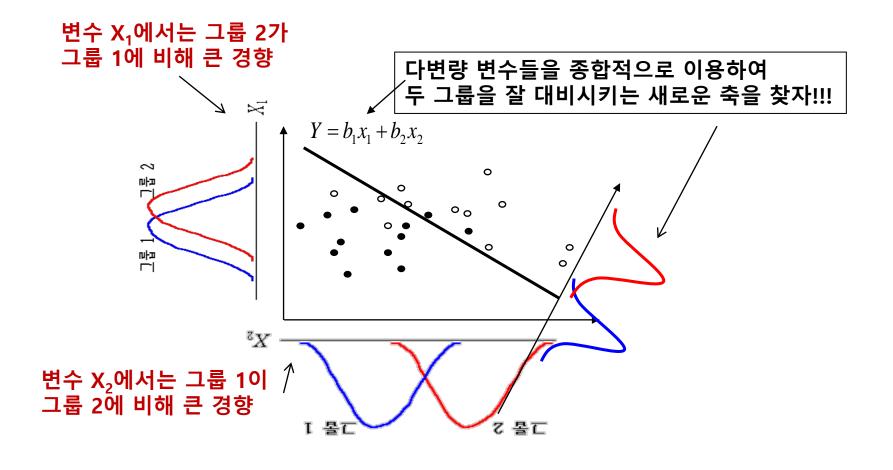
- □ 선형판별식 기하
  - 두 개의 그룹이 그림과 같이 분포되어 있다면 두 개의 변수를 동시에 고려한
     새로운 축에 의해 구분했을 때 두 그룹의 차이를 명료하게 해 줄 수 있음
  - 선형 판별분석은 이와 같은 축을 찾아 집단을 구분하는 것



판별변수 x들의 선형결합을 통해 그룹을 가장 잘 분리하는 새로운 축을 만들어 냄

## 선형판별식의 기하

- □ 선형판별식 기하
  - 다변량 변수의 선형결합에 의하여 전체 데이터를 구분함.



3. 선형판별식의 원리

#### □ 원리

분석자료 형태: P개의 변수로 이루어진 다변량 자료를 2개의 그룹으로 분리함.

그룹 1 (G=1): 
$$(x_{i1}^{(1)}, x_{i2}^{(1)}, \dots, x_{ip}^{(1)}), i=1,\dots,n_1$$

그룹 2 (G=2): 
$$(x_{i1}^{(2)}, x_{i2}^{(2)}, \dots, x_{ip}^{(2)}), i=1,\dots,n_2$$

각 그룹은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표본평균벡터와 표본공분
 산 행렬로 요약

그룹 1 (G=1): 
$$\overline{x}^{(1)}$$
,  $S^{(1)}$ 

그룹 2 (G=2): 
$$\overline{x}^{(2)}$$
,  $S^{(2)}$ 

만약 두 그룹이 모집단 수준에서동일한 공분산 행렬을 가질 경우

$$S = \frac{(n_1 - 1)S^{(1)} + (n_2 - 1)S^{(2)}}{(n_1 - 1) + (n_2 - 1)}$$

- □ 원리
- 임의의 관측벡터:  $x^T = (x_1, x_2, \dots, x_p)$ 
  - 그룹 평균(중심점)에서 마할라노비스 거리가 작은 쪽으로 판정

$$(x - \overline{x}^{(1)})^T S^{-1}(x - \overline{x}^{(1)}) \ge (x - \overline{x}^{(2)})^T S^{-1}(x - \overline{x}^{(2)})$$
 임의의 관측벡터가 그룹 2로 판단되는 기준 
$$\Leftrightarrow -2\overline{x}^{(1)^T} S^{-1} x + \overline{x}^{(1)^T} S^{-1} \overline{x}^{(1)} \ge -2\overline{x}^{(2)^T} S^{-1} x + \overline{x}^{(2)^T} S^{-1} \overline{x}^{(2)}$$
 
$$\Leftrightarrow (\overline{x}^{(2)} - \overline{x}^{(1)})^T S^{-1} x \ge (\overline{x}^{(2)^T} S^{-1} \overline{x}^{(2)} - \overline{x}^{(1)^T} S^{-1} \overline{x}^{(1)}) / 2$$

- $-x^T$ 에 대한 판별식,  $b^Tx = b_1x_1 + \cdots + b_px_p$  과 분류기준
  - $x \in \Box \exists 1 \leftrightarrow b^T x < c$
  - $x \in \Box \exists 2 \leftrightarrow b^T x \geq c$

소속 그룹이 알려지지 않은 임의의 관측벡터 x 가 어느 그룹에서 나온 것일까를 판별하는 기준

- □ 원리
- 임의의 관측벡터:  $x^T = (x_1, x_2, \dots, x_p)$ 
  - $x \in \Box \exists 1 \leftrightarrow b^T x < c$
  - $x \in \Box \exists 2 \leftrightarrow b^T x \geq c$

$$(x - \overline{x}^{(1)})^{T} S^{-1} (x - \overline{x}^{(1)}) \ge (x - \overline{x}^{(2)})^{T} S^{-1} (x - \overline{x}^{(2)})$$

$$\Leftrightarrow -2\overline{x}^{(1)^{T}} S^{-1} x + \overline{x}^{(1)^{T}} S^{-1} \overline{x}^{(1)} \ge -2\overline{x}^{(2)^{T}} S^{-1} x + \overline{x}^{(2)^{T}} S^{-1} \overline{x}^{(2)}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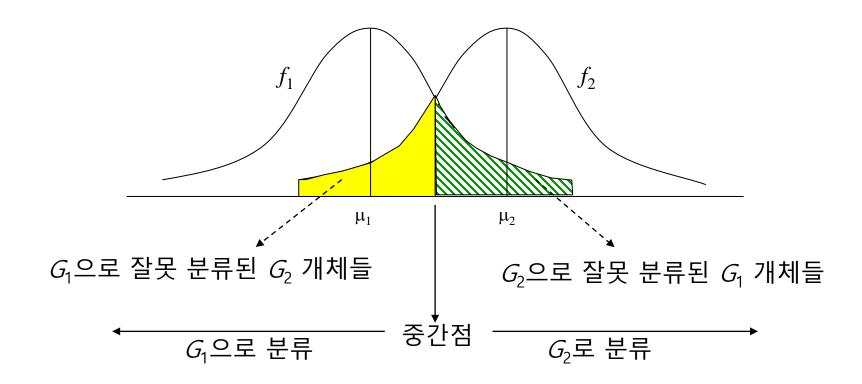
$$\Leftrightarrow \overline{x}^{(2)^{T}} S^{-1} x - \overline{x}^{(2)^{T}} S^{-1} \overline{x}^{(2)} / 2 \ge \overline{x}^{(1)^{T}} S^{-1} x - \overline{x}^{(1)^{T}} S^{-1} \overline{x}^{(1)} / 2$$

$$L_{1}(x)$$

0

- 판별함수:  $L_g(x) = \overline{x}^{(g)}^T S^{-1} x \overline{x}^{(g)}^T S^{-1} \overline{x}^{(g)}/2$ 
  - $\checkmark$   $x \in$  □  $∃1 \leftrightarrow L_1(x) \ge L_2(x)$

## □ 원리



#### □ 원리

- 한 개의 연속형 관찰 변수  $\chi$ 에 근거하여 개체를 두 개의 집단( $G_1$  또는  $G_2$ )으로 판별
  - \_ 가정
    - 집단 G에서 변수 X는 평균이  $\mu$ 이고 분산  $\Sigma$ 인 정규분포
    - 집단  $G_2$ 에서 변수 X는 평균이  $\mu_2$ 이고 분산  $\Sigma$  인 정규분포

#### - 판별방법

• 변수 X=x 에 대하여 집단  $G_1$ 에 속할 확률  $f_1(x)$ 과 집단  $G_2$ 에 속할 확률  $f_2(x)$ 에 대하여  $f_1(x)>f_2(x)$  면  $G_1$ 에 할당

- □ 원리
  - 판별에 사용될 변수의 개수가  $X_1, X_2, ..., X_p$ , 즉, p개의 경우로 확장 가능
    - \_ 판별 방법

- ✓ 변수들  $X_1=x_1, \ X_2=x_2, ..., \ X_p=x_p$ 를 가지는 개체에 대하여 집단  $G_1$ 에 속할 확률  $f_1(x)$ 과 집단  $G_2$ 에 속할 확률  $f_2(x)$ 을 계산하여  $f_1(x)>f_2(x)$  면  $G_1$ 에 할당
- $\checkmark$  각 그룹이 다른 사전 확률  $\pi_1$ ,  $\pi_2$ 를 가지는 경우  $\pi_1 f_1(x) > \pi_2 f_2(x)$  면  $G_1$  에 할당

#### 4. 선형판별함수(2그룹)

- □ 가정
  - 관찰된 변수  $X_1, X_2, ..., X_p$  가 집단  $G_1$ 에 속한다면 평균벡터  $\mu_1$  인 다변 량 정규 분포를 따름
  - 관찰된 변수  $X_1, X_2, ..., X_p$  가 집단  $G_2$ 에 속한다면 평균벡터  $\mu_2$  인 다변 량 정규 분포를 따름
  - \_ 두 집단의 공분산행렬은 동일
- □ 판별방법
  - $\alpha^{T}(x \mu) > 0$  면 개체를  $G_{1}$ 에 할당한다.
  - $\alpha^T(x \mu) = a + b^T x$  (선형판별함수)

여기서 
$$\alpha^T(x-\mu)$$
 의  $\alpha = \Sigma^{-1}(\mu_1 - \mu_2)$  그리고  $\mu = (\mu_1 + \mu_2)/2$   $\alpha^T(x-\mu) = (\mu_1 - \mu_2)^T \Sigma^{-1}(x-\mu) = (\mu_1 - \mu_2)^T \Sigma^{-1}(x-\mu) = (\mu_1 - \mu_2)^T \Sigma^{-1}(\mu_1 + \mu_2)/2$   $= -(\mu_1 - \mu_2)^T \Sigma^{-1}(\mu_1 + \mu_2)/2 + (\mu_1 - \mu_2)^T \Sigma^{-1}x$   $= a + b^T x$ 

선형판별함수(2그룹)

#### ☐ Fisher의 idea

• 다변량 자료 x를 두 집단 G1 과 G2를 가능한 한 다르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일변량으로 변환하자!

• 
$$z = a_1 x_1 + a_2 x_2 + \dots + a_p x_p$$

- 목적
- ✓ 두 집단의 표본 평균들을 가장 크게 차이 나도록 만드는 x 의 선형 결합을 선택
- ✓ 합동 공분산행렬을 가진 다변량 정규분포에서의 선형 판별 함수와 동일

Finance 데이터 (finance.csv)

- □ 재무지표에 의한 기업분류
- □ 46개 기업의 재무지표

## 측정변수

X1: 총부채 대비 현금 유출입

X2: 총자산 대비 순이익

X3: 채무 대비 자산

X4: 순매출 대비 자산

Y: 1='파산기업', 2='건전기업'

## Finance 데이터 (finance.csv)

- > data1<-read.csv("finance.csv",header=T)</pre>
- > head(data1)

```
id x1 x2 x3 x4 y

1 -0.448 -0.410 1.086 0.452 1

2 -0.563 -0.311 1.513 0.164 1

3 0.064 0.015 1.007 0.397 1

4 -0.072 -0.093 1.454 0.258 1

5 -0.100 -0.091 1.564 0.668 1

6 -0.142 -0.065 0.706 0.279 1
```

## ❑ 재무지표에 의한 기업분류 (46개 기업의 재무지표)

#### 측정변수

X1: 총부채 대비 현금 유출입

X2: 총자산 대비 순이익

X3: 채무 대비 자산

X4: 순매출 대비 자산

Y: 1='파산기업', 2='건전기업'

- > attach(data1)
- > library(MASS)
- > lda.model1<- lda(y~x1+x2+x3+x4,prior=c(0.5,0.5)) #y 값의 사전확률 1/2씩 할당됨.
- > lda.model2<- lda(y~x1+x2+x3+x4) # 사전확률은 y의 1과 2의 비율로 결정됨. 여기서 1은 21개, 2는 25개. 21/46= 0.4565217
- > lda.model2

Prior probabilities of groups: # 사전확률

1 2

0.4565217 0.5434783

#### Group means:

x1 x2 x3 x4

1 -0.07319048 -0.08180952 1.367048 0.4378571

2 0.23492000 0.05472000 2.580400 0.4281200

#### Coefficients of linear discriminants:# 선형판별계수

LD1

x1 1.002366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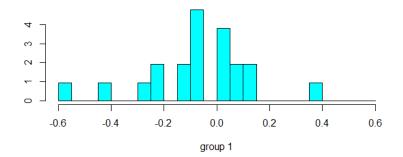
x2 3.999857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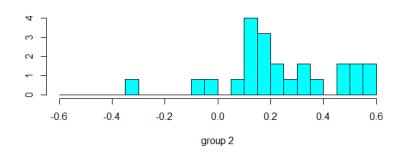
x3 0.8450508

x4 - 1.0153181

```
> lda.model2$means
                      x2 x3
           \mathbf{x}1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\times 4
1 -0.07319048 -0.08180952 1.367048 0.4378571
2 0.23492000 0.05472000 2.580400 0.4281200
> lda.model2$counts # y 값 요약.
1 2
21 25
> lda.model2$prior # 사전확률
0.4565217 0.5434783
> lda.model2$lev # y의 수준(level)
[1] "1" "2"
> lda.model2$N # 전체 샘플의 수
[1] 46
```

- > ldahist(data=x1,g=y,type="histogram") #x1의 그룹별 히스토그램 #(아래 그림 참고)
- > ldahist(data=x2, g=y, type="density") #x2의 그룹별 확률밀도함수
- > ldahist(data=x3, g=y, type="both") # x3의 그룹별 히스토그램과 확률밀도함수
- > ldahist(data=x4, g=y) # x4의 그룹별 비교





오분류율은 (1+3)/46 = 0.08695652

모형을 만들때 쓰인 데이터와 다시 예측에 쓰인 데이터가 동일하기 때문에,과적합이 일반적으로 발생.

즉, 오분류율이 실제 예측보다 낮은 경향이 있다.

## 선형판별함수(2그룹)

#### □ 분류

- 재대입 분류(resubstitution)

실제집단	예측집단	
	G1	G2
G1	$N_{11}$	$N_{12}$
G2	$N_{21}$	$N_{22}$

- 정확도(Hit ratio) =  $(N_{11} + N_{22})/(N_{11} + N_{12} + N_{21} + N_{22})$
- 총 오분류율(Error rate)  $=(N_{12}+N_{21})/(N_{11}+N_{12}+N_{21}+N_{22})$
- 분류표의 정확도는 과다하게, 오류율은 과소하게 잡히기 마련 => 과적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.

- 선형판별함수(2그룹)
- □ 과적합 방지를 위한 방법
- 교차타당성(Cross-Validation) 기법
  - 분류 시 각 관찰값은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자료로부터 유도된 함수에 의해 분류
  - 즉, (n-1)의 샘플을 이용하여 판별함수를 만든 후, 제외되었던 샘 플의 y 값을 예측한다. predicted value of y.
  - 위의 과정을 n 번 반복하여 각 샘플에 대한 예측값을 구한다.
  - 분석표본(analysis sample, training sample)
    - √분류규칙의 산출에 필요한 표본
  - 평가표본(validation sample, holdout sample)
    - ✓분류규칙의 수행평가를 위한 표본

## 교차 타당성(cross-validation)을 이용

```
> lda.model.cv<-lda(y~x1+x2+x3+x4,CV=TRUE)</pre>
> y.pred<- lda.model.cv$class</pre>
> table(y.pred,y)
      У
y.pred 1 2
     1 17 2
     2 4 23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# 사후확률
> lda.model.cv$posterior
                           2
  9.973683e-01 0.002631680
  9.681017e-01 0.031898254
  7.322880e-01 0.267711980
  7.534481e-01 0.246551910
  8.508852e-01 0.149114823
  9.052172e-01 0.094782756
  6.824647e-01 0.317535338
  7.825799e-01 0.217420132
9 6.646031e-01 0.335396908
```

## 선형판별함수(3그룹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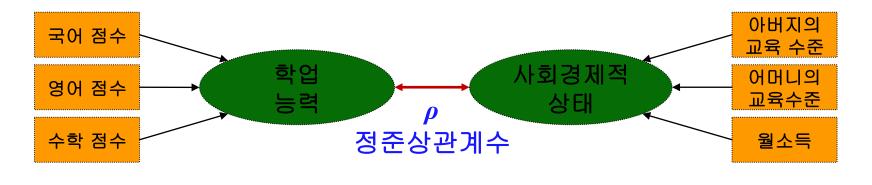
- □ 가정
  - \_ 다변량 정규성, 합동 공분산행렬
- □ 판별방법
  - \_ 각 두 개 집단간 선형판별함수

$$h_{12}(x) = (\mu_1 - \mu_2)^T \Sigma^{-1} \left[ x - \frac{1}{2} (\mu_1 + \mu_2) \right] \qquad h_{13}(x) = (\mu_1 - \mu_3)^T \Sigma^{-1} \left[ x - \frac{1}{2} (\mu_1 + \mu_3) \right]$$
$$h_{23}(x) = (\mu_2 - \mu_3)^T \Sigma^{-1} \left[ x - \frac{1}{2} (\mu_2 + \mu_3) \right]$$

- $h_{12}(x) > 0$  과  $h_{13}(x) > 0$  이면 집단  $G_1$  에 할당
- ullet  $h_{12}(x) < 0$  과  $h_{23}(x) > 0$  이면 집단  $G_2$  에 할당
- $\mathbf{h}_{13}(x) < 0$  과  $h_{23}(x) < 0$  이면 집단  $G_3$  에 할당

## 5.1 정준상관 분석(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)

#### 정준상관 분석의 개념



$$\begin{cases} v = \boldsymbol{\alpha}' \mathbf{x} = \alpha_1 x_1 + \alpha_2 x_2 + \dots + \alpha_p x_p \\ w = \boldsymbol{\beta}' \mathbf{y} = \beta_1 y_1 + \beta_2 y_2 + \dots + \beta_q y_q \end{cases}$$

$$\rho = \max_{\alpha,\ \beta} \, \mathrm{Corr}(v,w)$$

- ❖ 정준변량 (Canonical Variate)
- ❖ 정준계수 (Canonical Coefficient)

## 정준상관 분석(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)

#### 정준상관 분석의 개념

- 두 개의 변수 집단 간의 선형성 상관 관계를 파악하고 양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
- Hotelling(1935)에 의해 제안된 방법.
- -(수학계산속도와 계산능력), (독해속도와 독해능력) 두 개 변수 집단 간의 상관관계 계산
- ▶ 단순상관계수 : (한 개 변수, 한 개 변수)에 대한 상관성
- ▶ 다중상관계수 : (한 개 변수, 여러 개 변수)에 대한 상관성
- ▶ 정준상관계수 : (여러 개 변수, 여러 개 변수) 에 대한 상관성
- 다차원에 놓인 두 변수 집단간의 관계를 저차원의 정준변수 쌍으로 전환하여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음. 정준상관계수가 정준변수간의 상관성을 나타냄.

정준상관 분석(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)

#### 정준상관 분석의 개념

$$\rho(v,w) = \frac{\alpha' \Sigma_{xy} \beta}{\sqrt{(\alpha' \Sigma_{xx} \alpha)(\beta' \Sigma_{yy} \beta)}}$$

위의 상관계수를 최대로 하는 정준계수벡터  $\alpha$  와  $\beta$  를 찾는다.

- ▶ 정준변수를 구하는 과정
- 1. 첫 번째 정준변수 쌍(first canonical variate pair)  $(v_1, w_1)$ 은  $|\rho(v, w)|$ 를 최대로 하며  $Var(v_1) = Var(w_1)$ =1 인 변수들의 선형결합식이다.
- 2. 두 번째 정준변수 쌍(second canonical variate pair)  $(v_2, w_2)$ 는  $(v_1, w_1)$ 과 독립이면서  $|\rho(v, w)|$ 를 최대로 하며  $Var(v_2) = Var(w_2)$ =1 인 변수들의 선형결합식이다.
- 3. 위와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. (정준변수의 개수 = s = min(p,q))

5.2 정준판별분석(canonical discriminant analysis)

- □ 정준판별분석
  - 판별변수들에 대한 선형결합 형식의 차원축소를 통해 판별함수 구축
  - 선형결합의 표준화 변량 즉 정준판별변수를 이용한 판별분석
  - 표준화 정준계수(pooled within-class standardized coefficient)

: 각 판별변수의 상대적 중요도를 의미

정준판별분석(canonical discriminant analysis)

 $\Box$  선형판별함수 $(s \leq \min(p, k-1))$ 

$$I_{1}^{T}X = a_{11}X_{1} + a_{21}X_{2} + \dots + a_{p1}X_{p}$$

$$I_{2}^{T}X = a_{12}X_{1} + a_{22}X_{2} + \dots + a_{p2}X_{p}$$

$$\vdots$$

$$I_{s}^{T}X = a_{1s}X_{1} + a_{2s}X_{2} + \dots + a_{ps}X_{p}$$

- s개의 선형판별함수를 통해 k개의 집단이 최대한 분리되도
   록 결정
- 그룹간 변동과 그룹내 변동의 비를 최대화하는 계수를 찾자!

정준판별분석(canonical discriminant analysis)

- □ 정준판별함수의 계수 (s) 결정 기준
  - s번째 정준판별함수의 공헌도
  - 일반화 우도비 검정 (정규성 가정)
    - 귀무가설: 현재 및 이후 판별함수는 필요 없다.
    - 대립가설: 추가적인 판별함수가 필요하다.
- □ 개체 분류
  - 정준판별 함수값이 집단 평균 중 가장 가까운 값을 가지는 집단으로 분류

#### 6. 단계적 판별분석

- □ 단계적 판별분석
  - 독립변수의 수가 많을 때 어떠한 변수가 좋은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기 어려움
  - 이러한 경우에 단계적으로 독립변수를 투입하여 유의한 독립변수를 이용한 판별함수를 찾는 방법
- □ 변수선택(제거)의 방법
  - 전방선택법(Forward Selection)
    - •독립변수의 수를 단계별로 증가 시켜나가는 방법
  - 후방선택법(Backward Selection)
    - •독립변수의 수를 단계별로 줄여나가는 방법
  - 단계별 변수증감법(Stepwise Method)
    - •독립변수의 수를 단계별로 증감하는 방법

단계적 판별분석

- □ 변수선택(제거)의 기준
- 특정변수가 위의 변수선택 판정기준에 의해 도입(또는 제거)을 위해 점검되기에 앞서 일단 partial F-test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함
- 각 단계에서의 partial F-test(또는 Wilks' Lambda test)의 유의확률
   을 산출하고 유의수준과 비교하여 결정
- 각 변수의 기여도를 수정 평균(adjusted mean)의 그룹간 차이로 보고 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(p 값)을 평가하여 변수의 진입과 퇴출을 결정

✓ Wilks' Lambda : 가장 중요한 변수가 먼저 판별식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

- 7. 로지스틱 회귀를 이용한 판별분석
- □ 로지스틱 회귀분석
  - 世응값이 연속적이지 않고 범주형일때 사용하는 분석기법
  - 연구자는 성공확률을 추정하고, 그 값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가

무엇인가를 알아보는 문제에 적용

- 世응변수가 이항(예/아니오, 생존,사망 등)일 때와 다항(명목형, 순서형)일때로 나눌 수 있음
- \_로짓 분석이라고도 함
  - 설명변수(연속형) X 반응변수(연속형): 회귀분석 사용
  - 설명변수(연속형) X 반응변수(명목형): 로짓분석, 로지스틱 회귀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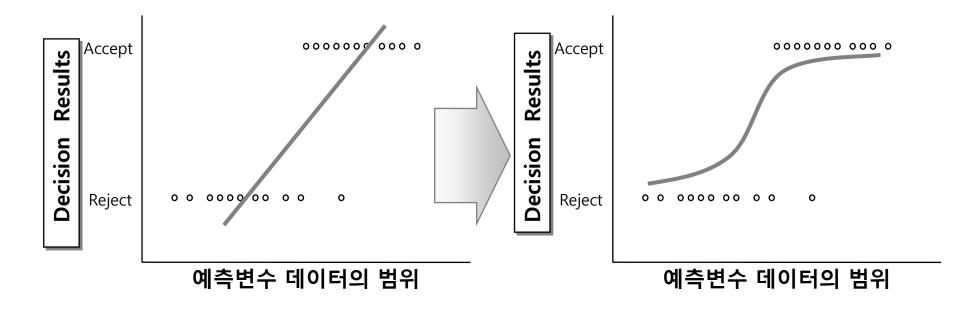
예) x : 월수입, y : 외제차 구입여부(1, 0)

x: 독성물질의 양 y: 사망여부(1, 0)

- 로지스틱 회귀를 이용한 판별분석
  로지스틱 회귀 분석 특징
- 분류 또는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함
- 로짓 분석은 이산형 변수에 대한 분석이며 주로 비선형적 관계를 규명하기
   때문에 정규성 가정을 가지고 있지 않음
- 독립변수에 명목/순서형 척도가 포함된 경우 판별분석\*보다 주로 로짓 분석을 사용
- 로짓 분석 모형의 적합성 판단은 최우추정법
   (Maximum Likelihood Method)으로 수행
  - \* 선형회귀분석은 최소자승법(Least Squares Method)임
- \* 판별분석(Discriminant Analysis) : 미리 정해진 그룹간의 차이를 잘 설명하여 줄 수 있는 설명변수들의 선형결합(판별함수)을 찾고, 그에 따라 새로운 개체를 분류하는 분석

□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적용

로지스틱 회귀 모형은 예측 변수에 대한 이산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성공 또 는 승인의 확률을 더욱 정확하게 표현하는 회귀 분석 방법임



선형 회귀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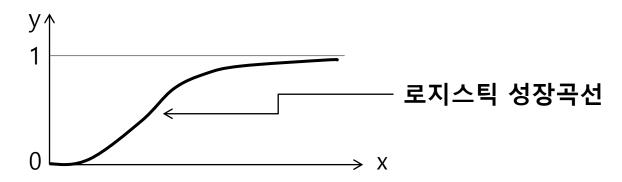
로지스틱 회귀 분석

□ 이항 반응변수의 경우

[데이터의 형태]

개체번호	반응 변수	설명 변수		
1	$y_1$	$X_{11}$ $X_{21}$ ··· $X_{k1}$		
2	$y_2$	$X_{12}$ $X_{22}$ $\cdots$ $X_{k2}$		
***	•••	*** *** ***		
N	УN	$X_{1N}$ $X_{2N}$ $\cdots$ $X_{kN}$		

반응변수 y가 두 결과값인 0과 1을 갖고 설명변수 X=x 값을 갖을 때성공확률 Px를 갖는 베르누이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



- □ 이항 반응변수의 경우
  - 설명변수가 X=x 일 때 종속변수 Y=y 일 확률

$$Y = \left\{ \begin{array}{cc} 1 & p_{\chi} \\ 0 & 1 - p_{\chi} \end{array} \right. \Leftrightarrow$$

- 이때의 성공확률  $p_x$ 에 대해 선형 확률 모형을 생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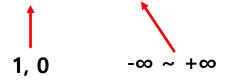
$$p_x = \alpha + \beta x$$

이때의 모형은 구조적인 결함이 내재

- ✓ 우선, 확률이기에 0과 1사이의 값을 가져야 하나 선형 확률모형에서는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지게 됨
- $\checkmark$  충분히 크거나 작은 x값에 대해서는 성공확률  $p_x$  는 0보다 작거나 1 보다 큰 값을 갖게 됨
- ✓ 추정에 있어서 최소제곱추정량(LSE)이 선형 불편추정량에 있어서 더이상 최소분산을 갖지 않게 됨

- □ 이항 반응변수의 경우
  - 성공확률  $p_x$ 에 대해 선형 확률 모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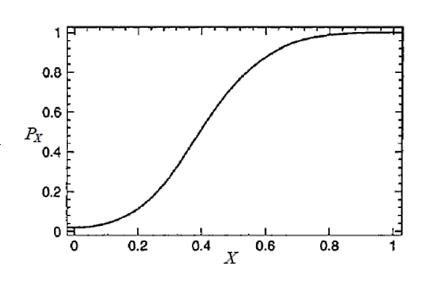
$$p_x = \alpha + \beta x$$
 의 구조적인 결함의 해결



$$P(Y = y | X = x) = p_x^y (1 - p_x)^{1-y} \quad (y = 0, 1)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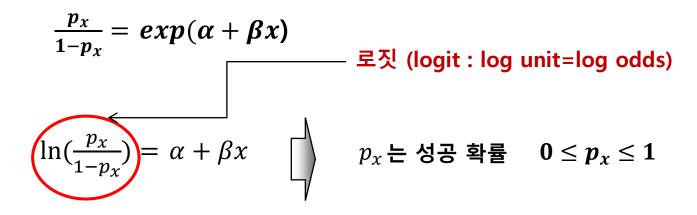
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구조는 다음 과 같은 곡선이 그 성질을 잘 반영 한다고 알려져 있음

> 로지스틱 반응함수 (Logistic Response Function)



□ 이항 반응변수의 경우

로지스틱 회귀 모형에서 종속변수가 2개로 나누어진 경우의 분석



로그를 풀어 
$$p_x$$
 에 대하여 정리하면 Event Probability 
$$p_x = \frac{\exp(\alpha + \beta x)}{1 + \exp(\alpha + \beta x)} \qquad \qquad \Rightarrow \qquad \hat{p}_x = \frac{\exp(\widehat{\alpha} + \widehat{\beta} x)}{1 + \exp(\widehat{\alpha} + \widehat{\beta} x)}$$

□ 이항 반응변수의 경우

$$p_{x} = \frac{\exp(\alpha + \beta x)}{1 + \exp(\alpha + \beta x)}$$

- $\Leftrightarrow$  β가 0 일 때에는 성공확률  $p_x$  가 설명변수 X와 무관한 상수값 설명변수와 반응변수간의 관계가 독립 | β|가 커짐에 따라 곡선의 변화율은 커짐
- ⇔ 성공확률에 대한 오즈(odds)

$$\frac{p_x}{1-p_x}=exp(\alpha+\beta x)$$

$$\Leftrightarrow$$
  $\ln(\frac{p_x}{1-p_x}) = \alpha + \beta x$  : 로짓 모형

■ 수학에서 그래프 모양을 로지스틱 곡선이라 부르는데 기인하여 모형을 로지스틱 회귀모형 혹은 로짓(logit : Log Unit)모형이라고 함

#### □ 이항 반응변수의 경우

만약 변수가 여러 개 이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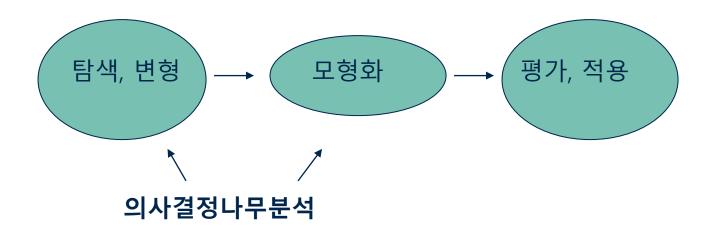
$$p_{x} = \frac{\exp(\alpha + \beta_{1}x_{1} + \beta_{2}x_{2} + \dots + \beta_{k}x_{k})}{1 + \exp(\alpha + \beta_{1}x_{1} + \beta_{2}x_{2} + \dots + \beta_{k}x_{k})}$$

로짓모형 : 
$$\ln(\frac{p_x}{1-p_x}) = \alpha + \beta_1 x_1 + \beta_2 x_2 + \dots + \beta_k x_k$$
  $\beta_i$ 의 추정치  $b_i$ , 이의 표준오차  $s_{b_i}$  MLE를 이용하여 추정

[가설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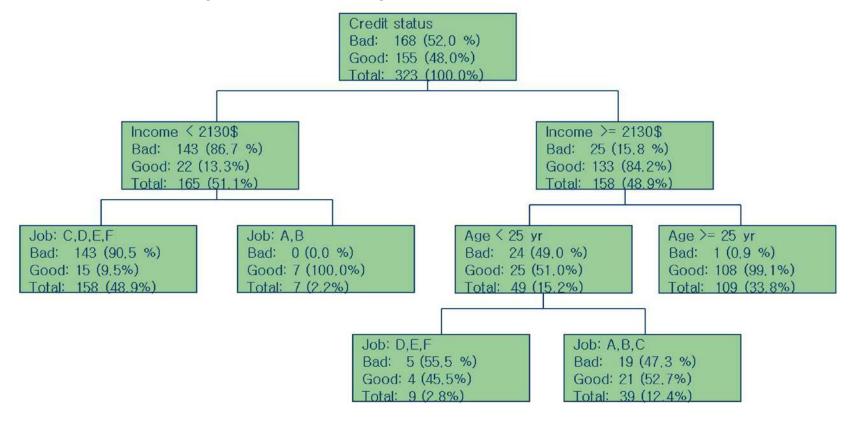
$$H_0: \beta_i = 0$$
  $vs.$   $H_1: \beta_i \neq 0$   $\beta_i$ 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표준정규분포:  $H_0: \beta_i = 0$  下 [검정통계량] 왈드통계량  $\chi_w^2 = \left(\frac{b_i}{s_{b_i}}\right)^2 \sim \chi^2(1)$  참조:  $Z \sim N(0,1) \rightarrow Z^2 \sim \chi^2(1)$ 

## 8. 의사결정나무 (Decision Tree)



- 탐색: 이상치의 검색, 분석에 필요한 변수 및 교호효과를 찾아냄
- 모형화: 판별 및 예측 모형
- 적용결과에 의해 if-then으로 표현되는 규칙이 생성
- 해석이 쉬움 (많은 경우 결정을 내리게 된데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(해석력)이 중요. 예: 은행의 대출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이 나온 경우 고객에게 부적격 이유를 설명하여야 함)

## 의사결정나무(Decision Tree)의 예



뿌리마디(root node): 시작되는 마디로 전체 자료로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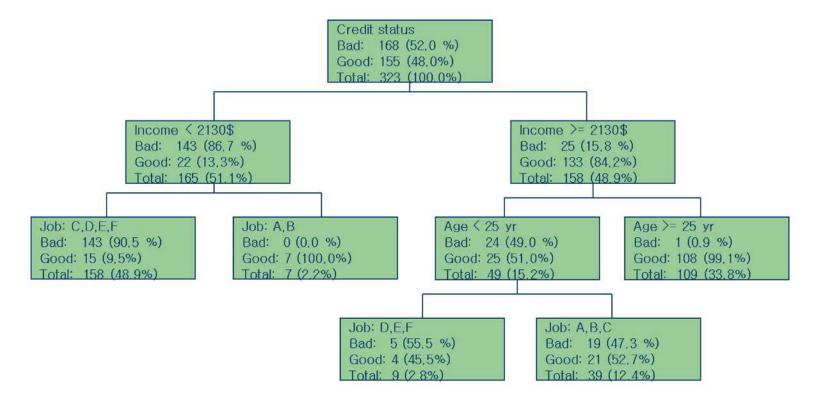
자식마디(child node): 하나의 마디로부터 분리되어 나간 2개 이상의 마디들

부모마디(parent node): 주어진 마디의 상위마디 끝마디(terminal node): 자식마디가 없는 마디

중간마디(internal node): 부모마디와 자식마디가 모두 있는 마디

가지 (branch): 뿌리마디로부터 끝마디까지 연결된 마디들 깊이 (depth): 뿌리마디부터 끝마디까지의 중간마디의 수

### 의사결정나무 구축을 위한 질문



- 뿌리마디의 질문이 왜 소득인가? : 분할기준(splitting rule)의 선택
- 4번, 5번, 7번 마디들은 끝마디인 반면 6번 마디는 왜 중간마디인가?
- : 분할을 계속할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 (stopping and pruning rule)
- 7번 마디에 속하는 자료는 신용상태를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가?
- : 각 끝마디에서의 예측값 할당

# 의사결정나무(Decision Tree)의 형성과정

- 나무의 성장(growing): 각 마디에서 적절한 최적의 분 리규칙을 찾아서 나무를 성장 시킴. 정지규칙을 만족하 면 중단.
- 가지치기(pruning): 오분류율을 크게 할 위험이 높거나 부적절한 추론규칙을 가지고 있는 가지를 제거. 또한,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.
- 타당성 평가: 이익도표(gain chart)나 위험도표(risk chart) 또는 테스트 자료 (test sample)를 사용하여 의사결정나무를 평가
- 해석 및 예측: 구축된 나무모형을 해석하고 예측모형을 설정

# 의사결정나무(Decision Tree)의 분리규칙

- 각 마디에서 분리규칙은 분리에 사용될 입력변수 (분리변수, split variable)의 선택과 분리가 이루어 질 기준 (분리 기준, split criterion)
   을 의미
- 분리에 사용될 변수(X)가 연속 변수인 경우에는 X 가 분리기준 c 보다 작으면 왼쪽 자식마디로 X 가 c 보다 크면 오른쪽 자식마디로 자료를 분리
- 타당성 평가: 테스트 자료 (test sample)를 사용하여 의사결정나무를 평가
- 분리변수가 범주형인 경우에는 분리기준은 전체 범주를 두 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누는 것이 됨. 예를 들면, 전체 범주가 {1,2,3,4}일때 분리 기준의 예로는 {1,2,4}과 {3}이 되고 분리변수가 범주 {1,2,4}에 속하면 왼쪽 자식마디로 범주 {3}에 속하면 오른쪽 자식마디로 자료를 분리

# 의사결정나무(Decision Tree)의 순수도와 불순도

- 각 마디에서 분리변수와 분리기준은 목표변수의 분포를 가장 잘 구별 해주도록 정함
- 목표변수의 분포를 얼마나 잘 구별하는가에 대한 측정치로 순수도 (purity) 또는 불순도 (impurity)를 사용
- (예) 그룹0과 그룹 1의 비율이 45%와 55%인 마디는 각 그룹의 비율이 90%와 10%인 마디에 비하여 순수도가 낮다 또는 불순도가 높다라고 함
- 각 마디에서 분리변수와 분리 기준의 설정은 생성된 두 개의 자식마디의 순수도의 합이 가장 큰 (혹은 불순도의 합이 가장 작은) 분리변수와 분리기준을 선택

# 불순도의 측도

- 분류모형 (범주형 목표변수)
- 카이제곱 통계량 (chi-square statistics) (5장 참고)
- 지니지수 (Gini index)
- 엔트로피지수 (Entropy index)
- 회귀모형 (연속형 목표변수)
- 분산분석에 의한 F- 통계량 (F-Statistics)
- 불순도에 대한 참고사항
- 불순도는 각 마디마다 정의됨
- 불순도를 이용한 분리기준의 선택에서는 자식마디의 불순도의 합을 가장 작게 하는 분리를 선택
- 이 방법은 부모마디의 불순도에서 자식마디의 불순도의 합의 차이가 최 대가 되는 분리를 찾는 것과 동일함

# 불순도의 측도 - 지니지수

주어진 분리변수와 분리기준에 의하여 다음의 표가 주어졌다고 하자.

	Good	Bad	Total
left	32	48	80
right	178	42	220
Total	210	90	300

지니지수 = 
$$2\mathbb{P}(\operatorname{left} \text{ dod})\mathbb{P}(\operatorname{left} \text{ dod})\mathbb{P}(\operatorname{left})$$

+2P(right 에서 good)P(right 에서 bad)P(right)

#### 위의 표에서 지니지수를 구하면

$$2\frac{32}{80}\frac{48}{80}\frac{80}{300} + 2\frac{178}{220}\frac{42}{220}\frac{220}{300} = 0.355$$

 모든 분리변수와 분리기준에서 지니지수를 가장 작게 하는 분리변수와 분리기준 선택

## 의사결정나무의 정지규칙과 가지치기

### 정지규칙: 현재의 마디가 더 이상 분리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규칙

- 규칙의 종류
- 모든 자료가 한 그룹에 속할 때
- 마디에 속하는 자료가 일정 수 이하일 때
- 불순도의 감소량이 아주 작을 때
- 뿌리마디로부터의 깊이가 일정 수 이상일 때 등이 있음

#### 가지치기

- 지나치게 많은 마디를 가지는 (복잡한 모형) 의사결정나무는 새로운 자료에 적용할 때 예측오차가 매우 클 가능성이 있음
- 성장이 끝난 나무의 가지를 제거하여 적당한 크기를 갖는 나무모형을
   최종적인 예측모형으로 선택하는 것이 예측력의 향상에 도움이 됨
- 적당한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은 평가용 자료(validation data)를 사용하여 예측에러를 구하고 이 예측에러가 가장 작은 나무모형을 선택

## 의사결정나무의 알고리즘

- 1984년 Leo Breiman과 그의 동료들이 발명 (UC Berkeley)
-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의사결정나무 알고리즘
- 이지분류(binary split)를 이용
- 불순도: 목표변수가 범주형인 경우 지니지수를 이용하고 목표변수가 연 속형인 경우에는 분산을 이용
- 이해하기 쉬운 규칙을 생성
- 연속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를 모두 다 취급할 수 있음
- 이상치에 덜 민감
- 모형의 가정 (선형성, 등분산성 등)이 필요 없는 비모수적 모형

```
> library(MASS)
> library(tree)
> data(iris)
> head(iris)
 Sepal.Length Sepal.Width Petal.Length Petal.Width Species
         5.1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.2 setosa
                   3.5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.4
1
         4.9
                 3.0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.4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.2 setosa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.2 setosa
        4.7
                 3.2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.3
       4.6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.2 setosa
                 3.1
                            1.5
                 3.6
                           1.4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.2 setosa
       5.0
       5.4
                 3.9
                            1.7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.4 setosa
```

```
> ir.tr = tree(Species ~., data=iris) # Y변수는 ~ 왼쪽, X변수는 ~ 오른쪽에 표기. 여기서 "."를 사용하면 모든 x 변수가 사용됨.data 이름을 명시해줘야 y 변수명을 바로 표기해서 모델을 적합할 수 있음.
```

```
> summary(ir.tr)
```

```
> summary(ir.tr)

Classification tree:
  tree(formula = Species ~ ., data = iris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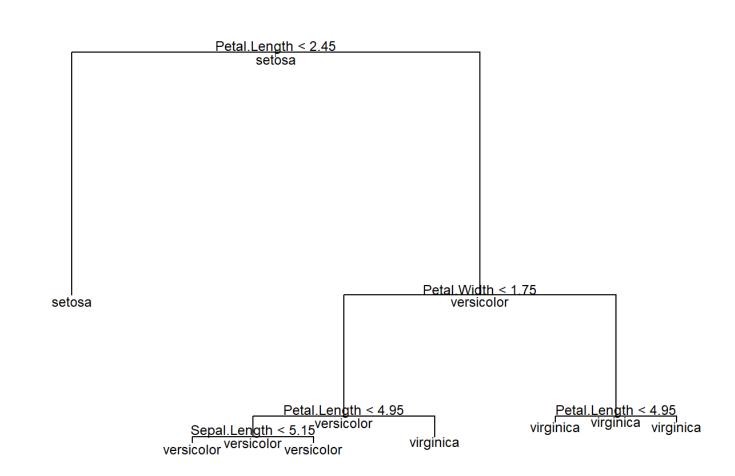
Variables actually used in tree construction:
  [1] "Petal.Length" "Petal.Width" "Sepal.Length"

Number of terminal nodes: 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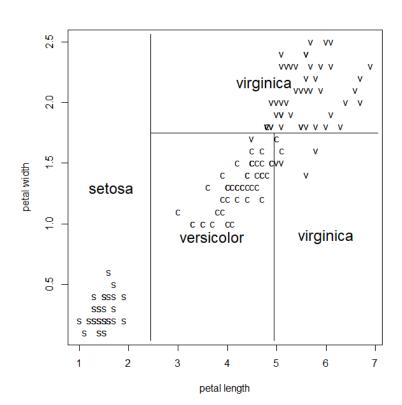
Residual mean deviance: 0.1253 = 18.05 / 144

Misclassification error rate: 0.02667 = 4 / 150
```

- > plot(ir.tr,lwd=2) # lwd 는 line width 조절
- > text(ir.tr, all=T,cex=1.5) # cex 는 글씨크기 조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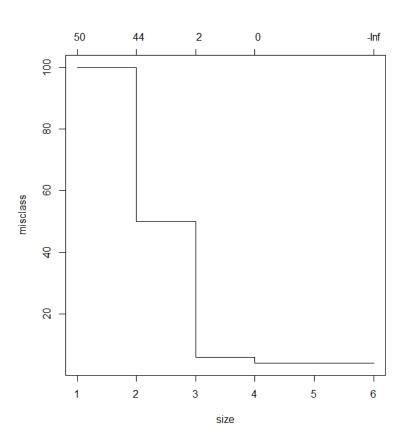


```
> ir.tr1 = snip.tree(ir.tr, nodes = c(12, 7))# 12와 7은 ir.tr의 결과에서 음영표시된 노드. 나무의 한 면을 보여준다. snip: 싹둑 자르다.
> par(pty = "s") # s는 square plotting region 을 의미
> plot(iris[, 3],iris[, 4], type="n",xlab="petal length", ylab="petal width")# type = none 이기 때문에 그래프에 출력 안됨.
> text(iris[, 3], iris[, 4], c("s", "c", "v")[iris[, 5]])
> partition.tree(ir.tr1, add = TRUE, cex = 1.5)
```



## 가지치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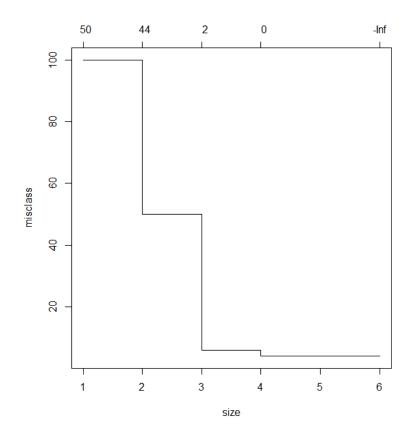
> plot(prune.misclass(ir.tr))
# 어디서 가지치기를 할 것인지 판단한다. 오분류율도 줄이고 나무의 크기도 줄일 수 있는 적당한 싸이즈를 선택한다. size=3 또는 4가 좋아보임.



## 가지치기

```
> final.tr1 = prune.misclass(ir.tr, best=3)
> final.tr2 = prune.misclass(ir.tr, best=4)
```

x축 위의 숫자( 50 ~ -inf)는 pruning parameter 의 손실-복잡성을 나타내는 값. 가지치기 할 때에는 고려하지 않고 넘어가도 무방. (size에 내포되어 있음)



### 가지치기한 후의 모형

```
> par(mfrow=c(1,2))
> plot(final.tr1,lwd=2)
> text(final.tr1,all=T,cex=1.5)
> plot(final.tr2,lwd=2)
> text(final.tr2,all=T,cex=1.5)
```

